

동물권행동 카라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

초등

카라에듀
karaedu.org

목차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 소개	1
초등 1-3학년 동물권 학습지도안 수업 사례	14
초등 4-6학년 동물권 학습지도안 수업 사례	22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 소개

1. 연구진 결성 및 학습지도안 개발
2. 시범수업 실시 및 교사진 심층인터뷰
3. 학습지도안 47종 구성
4. 학습지도안 세부 구성
5. PPT 및 교구 활용



1

연구진 결성 및 학습지도안 개발

동물권행동 카라는 공교육 현장에서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동물권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동물권 학습지도안 47종(초등 30, 중고등 17)을 개발했습니다. 2020년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활동가들과 현직 교사 등 16인의 교육전문가가 모여 18인의 학습지도안 연구진을 결성했으며, 연령대에 따라 초등 1-3학년과 4-6학년, 그리고 중고등 학습단계로 나누어 팀을 이뤘습니다.

교사가 자료를 조사하고 재구성하는 수고로움 없이 동물권 교육을 손쉽게 시도할 수 있도록, 지도안 외에도 수업용 PPT와 학생 활동용 교구를 함께 제작하여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안 다운로드
(PPT·교구 포함)

학습지도안 개발에 함께해주신 분들

권지연 화성화산초	양선아 인천영종초	최진숙 고은초
김재우 교육컨설턴트	옥지연 인천남동초	간현임 카라
김현아 충현고	윤지수 서울상수초	최민경 카라
김희라 경희여중	이자영 주업초	평화 카라
나혜영 예일여고	장자은 안양덕현초	
마민지 박달초	조희정 부천부광초	
승현아 서초중	최선영 청학교	

2

시범수업 실시 및 교사진 심층인터뷰

교사로서 동물권 수업을 처음 시도해보려고 할 때, 교육 현장을 미리 상상하고 가늠해보는 데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실제 교육사례’일 것입니다. 카라는 13인의 현직 교사를 모집해 동물권 학습지도안 교사진을 별도 구성했으며, 그들의 도움을 받아 총 30학급, 700여 명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동물권 시범수업을 실시했습니다. 매 수업마다 활동가들이 참관하여 생생한 후기를 기록했고, 교사진이 어떤 과정으로 수업을 준비했으며 실제 수업 경험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마다 1시간가량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교사로서 동물권과 연결된 계기, 수업 노하우 등 교사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13편의 기획 기사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수업 후기 및 심층인터뷰 보기

동물권 시범수업에 함께해주신 분들

권소연 경기영상과학교	양선아 인천영종초
김미정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기백 덕신초
김민형 외 8인 용호초	이현민 연송초
김연정 천안새샘초	채은진 단원중
김현아 충현고	최진숙 고은초
박선정 외 7인 마곡중	홍승희 매현초
안지영 외 2인 유현초	

학습지도안 전체 구성 - 초등

초등 1-3학년

초등 1-3학년 학습지도안은 '온작품읽기' 활동을 중심으로 하며, 그림책을 매개로 각 동물권 주제에 대한 수업을 이끌어 갑니다.

주제	No.	수업 제목
반려동물	1	반려동물이란?
	2	끝까지 함께하는 가족
	3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동물원동물	1	동물원은 어떤 곳일까?
	2	동물원의 동물은 행복할까?
	3	내가 꿈꾸는 동물원은?
	4	동물원 동물들, 따뜻한 배려가 필요해
길고양이	1	길고양이, 너는 누구니?
	2	길고양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3	길고양이야, 함께 살자!
	4	우리의 이웃, 길고양이
윤리적 소비	1	오리가 감기 걸린 날
	2	암탉은 고생 중
	3	푸른점을 구해줘
	4	진짜로 멋진 하루

초등 4-6학년

초등 4-6학년 학습지도안은 동일 주제를 좀 더 깊게 다루거나,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이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	No.	수업 제목
반려동물	1	만들어지고 팔리는 동물들
	2	가족을 잃은 유기동물의 슬픔
	3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해요!
동물원동물	1	동물원에서 지내는 동물들
	2	동물원, 나의 생각은?
	3	동물을 위한, 우리를 위한 선택
농장동물	1	농장동물이 뭐예요?
	2	농장동물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3	나와 동물과 지구를 위한 식습관
주변야생동물	1	길 위의 이웃, 길고양이와 만나요
	2	산에서 만나는 동물들, 산행 에티켓을 지켜요
	3	동물이동권, 동물도 안전하게 이동하고 싶어요
윤리적 소비	1	동물을 살리는 착한 옷
	2	동물을 살리는 착한 화장품
	3	동물은 실험용이 아니에요

4

학습지도안 세부 구성

예: 초등 1~3학년 길고양이 학습지도안

동물권행동 카라

초등 1~3학년
동물권 학습지도안
- 온작품읽기

길고양이



영역	대상	차시
길고양이	초등학교 1~3학년	총 8차시

수업 제목	차시	주요 활동	관련 작품
길고양이, 너는 누구니?	1~2	-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만난 경험 나누기 - 길고양이의 모습과 특성 알기 - 동화 속 길고양이를 만나기	
길고양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3~4	- 『어느 날, 고양이가 왔다』 읽기 - 길고양이는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길고양이야, 함께 살자!	5~6	- 길고양이를 돕는 방법 (공존 보드게임) - '함께 살아요' 팸플릿 만들기	
우리의 이웃, 길고양이	7~8	- 내가 길고양이라면 어떤 동네에서 살고 싶을까? - 캠페인 활동하기	

주제별 학습지도안 표지 및 교육 개요

이 책을 함께 읽어오!



『어느 날, 고양이가 왔다』

이 그림책은 불로섬 거리의 한 고양이가 사라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여태껏 관심 없이 지내던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모습을 담았다. 이 책은 다양한 인종이 생활하는 모습을 잔잔한 분위기의 화풍으로 그려 냈는데, 그들의 모습은 실제 우리 주변의 이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들은 이 책을 통해 이웃의 의미와 함께 조화롭게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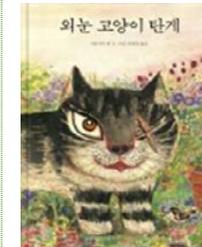
케이터 하네트 글·그림 | 김경희 옮김
트리앤북 | 2017-04-14

길고양이 관련 추천도서



『내 이름은 모모』

임주하 글
정하나 그림
별글
2018-0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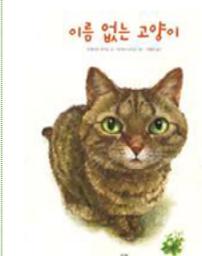
『외눈 고양이 탄게』

가타야마 켄 글·그림
엄혜숙 옮김
길벗스쿨
2019-06-05



『나옹이』

노석미 글·그림
시공주니어
2008-04-25



『이름 없는 고양이』

다케시타 후미코 글
마치다 나오코 그림
고향옥 옮김
살림
2020-04-22

온작품읽기 도서 및 추천도서

1. 길고양이, 너는 누구니?

영역 : 길고양이
대상 : 초등학교 1~3학년
차시 : 1~2차시 (총 8차시)

수업 소개

길고양이는 인간동물과 생활 터전을 가장 밀접하게 공유하며 살아가는 대표적 동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물리적 공간만을 공유할 뿐 길고양이와 진정으로 공존하는 삶의 형태는 갖추지 못했다. 로드킬이나 재개발 등으로 살아가던 터전을 잃기도 하고, 혐오나 학대로 인해 목숨에 위협을 받는 것이 현대사회 길고양이들의 현실이다. 본 차시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관심을 유도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길고양이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학습 주제	길고양이의 모습과 특성 알기
학습 목표	○ 길고양이의 모습과 사는 곳, 행동 특성을 안다. ○ 길고양이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임을 이해한다.
관련 교과	국어
성취 기준	[2국02-05] 읽기에 흥미를 가지고 즐겨 읽는 태도를 지닌다. [2국05-04] 자신의 생각이나 겪은 일을 시나 노래, 이야기 등으로 표현한다. [2국05-05] 시나 노래, 이야기에 흥미를 가진다. [4국01-05] 내용을 요약하며 듣는다.
지도상의 유의점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간동물과 생활영역을 공유하는 생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길고양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기른다.

들어가기	활동하기	정리하기
○ 나는 누구일까요?	○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만난 경험 나누기 ○ 길고양이의 모습과 특성 알기 ○ 동화 속 길고양이들 만나기	○ O-X 퀴즈로 배운 내용 확인하기

단계	교수·학습 활동	준비물
들어가기	<p>◎ 학습 주제 확인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날, 고양이가 왔다』 책 표지를 보며 오늘 학습할 주제에 대해 상상해본다. - “그림자를 보고 누가 온 것인지 맞춰 봅시다.” - “책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활동하기	<p>활동1 우리가 잘 모르는 이웃, 길고양이</p> <p>◎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만난 경험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사는 동네에서 길고양이를 만난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우리 동네에서 고양이를 만난 적이 있나요?” - “고양이를 어디에서 발견했나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 “고양이의 크기와 털색은 어땠나요?” - “고양이의 기분은 어때 보였나요?” - “고양이의 건강 상태는 어때 보였나요?” <p>TIP</p> <p>고양이의 생김새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학습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길고양이를 발견하기 힘든 지역이라면 아래 영상으로 대체하여 지도한다.</p> <p>▶ 다큐멘터리 영화 <고양이 집사> 첫 번째 트레일러 https://www.youtube.com/watch?v=orns2Qn_1fo&feature=youtu.be</p> <p>◎ ‘길고양이’ 의미 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고양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 “길고양이는 길에서 태어났거나 가족으로부터 버림 받고 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해요.” <p>활동2 길고양이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p> <p>◎ 길고양이에 대한 이미지 나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고양이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발표하도록 하며, 학생들의 답변을 판서한다. - “여러분은 ‘길고양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p>▶ 학생 답변 예시 무서워요, 야기 목소리로 울어요, 똥똥해요, 너무 말랐어요, 귀여워요, 불쌍해요, 더러워요, 배고파 보여요 등</p>	

◎ '길고양이' 정의

길고양이의 범주는 사실 모호하다. 단순히 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한다면 들고양이, 유기고양이, 외출고양이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 된다. 본 지도안에서는 '길고양이'를 '인간 동물과 생활영역을 공유하며 길에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하기로 한다.

◎ 길고양이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1. 길고양이는 더럽다?

→ 길고양이는 털이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하는 깔끔한 성격의 동물이다. 깨어 있는 시간의 상당 부분을 그루밍하며 보낸다. 그루밍이란 돌기가 있는 혀로 몸을 핥아서 털을 빗고 깨끗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2. 길고양이는 병균을 옮긴다?

→ 고양이는 인간에게 유해한 병균(페스트, 찻뜨가무시 등)을 옮기는 쥐들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한다.

3. 길고양이는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주변을 어지럽힌다?

→ 길고양이가 쓰레기 봉투를 뜯는 이유는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음식을 쓰레기라도 먹어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깨끗한 사료와 물을 제공하면 길고양이가 먹이를 찾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뜯을 일이 없다.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TNR(포획,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 방사)은 사람과 길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4. 길고양이는 불쌍하니까 무조건 집에 데려와야 한다?

→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다.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실내 환경이 사람에게 편할 수 있지만, 길에서 야생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고양이에게는 평생 적응하기 어려운 곳이 될 수 있다. 특히 새끼 고양이의 경우, 사람의 돌봄을 한 번 받으면 야생성을 잃어버려 다시 밖에 내보낼 수 없으니 매우 신중해야 한다.

5. 길고양이는 시끄럽다?

→ 고양이는 발소리조차 내지 않는 아주 조용한 동물이다. 길고양이가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는 혼치 않는데 보통 영역싸움을 하거나 발정기에 짝을 찾는 경우 등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거나 지역 내 길고양이 돌봄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길고양이 TNR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다. TNR이란 길고양이를 포획, 중성화 수술 후 제자리 방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TNR을 함으로써 지역 내 길고양이의 일정 개체수를 유지하고 발정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TNR은 사람과 길고양이가 모두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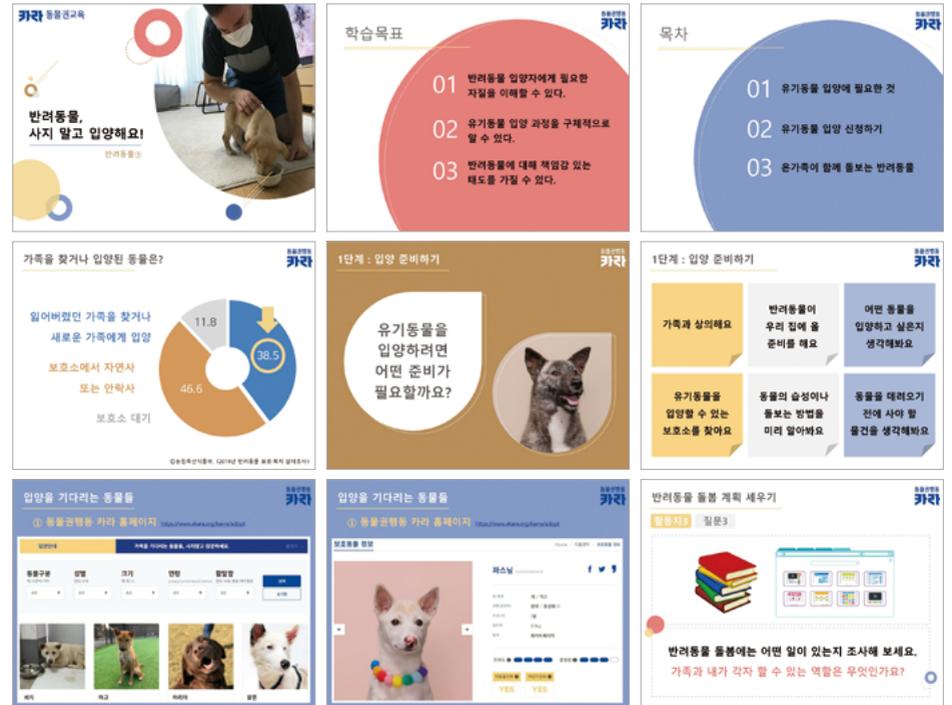
5

PPT 및 교구 활용

예: 초등 1-3학년 길고양이 학습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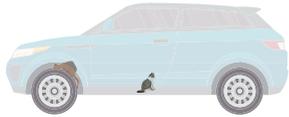
모든 학습지도안에는 수업용 PPT가 함께 제공됩니다. 주요 발문이나 시각 자료 등이 삽입되어 있으며, 동영상 자료도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링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습지도안에서 제시하는 학생 활동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가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일반 학습지 형태의 교구뿐 아니라 그리기·만들기 키트나 보드게임형 교구도 있으며, PDF 파일을 교내에서 직접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 2 <길고양이와 함께 살아요> 팸플릿 만들기

차 안에서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나요?



잠깐! 길고양이가 차 속 엔진룸에 있을 수 있어요.

길고양이가 엔진룸에 들어가는 이유는

때문이에요.

그냥 운전할 하면 사람과 고양이 모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프 노팅, 이렇게 실천하세요.

- 1)
2)
3)

활동지 2 <길고양이와 함께 살아요> 팸플릿 만들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는 이웃이 있나요?



사람이 많은 도시에는 고양이가 사냥할 수 있는 작은 동물이 충분하지 않아요.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길고양이는 늘 배가 고프지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으면

밥을 줄 때에는 꼭 이렇게 할게요.

- 1)
2)

활동지 3 <함께 사는 우리 동네> 만들기 키트

정션을 따라 오린 뒤, 뒷면 흰 부분에 붙여서 지도에 붙여 보세요.



학습지형 교구 예시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보드게임. Includes title, rules, and preparation steps.

아이템 추사위 전개도 (정션을 따라 잘라서 사용하세요). Includes a net for a board game with various icons and text.

보드게임형 교구 예시

초등 1-3학년 동물권 학습지도안 수업 사례

1. 반려동물
2. 동물원동물
3. 길고양이
4. 윤리적 소비

교사 인터뷰

초등 1-3학년 윤리적 소비 학습지도안 시범수업



인터뷰 전문

날짜

2021년 5월 26일(수)

방식

오프라인 대면 수업

참여

**초등학교 3학년 1반
최** 선생님과 학생들



“혼자 적합한 자료를 찾고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Q. 언제 무엇을 계기로 동물권에 관심이 생겼나요?

A. 4년 전 고양이를 입양하려고 알아보다가 포인핸드를 통해 보호소에 가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곳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걸 계기로 유기동물과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동물권에 관심이 생겼어요. 몰랐을 때는 안 보였는데,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후로 고양이를 구조하게 되기도 하고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과 연대하여 활동한다거나 쉼터 봉사도 하게 되었어요.

Q. 동물권과 관련해 특히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요?

A. 예전에는 길고양이나 반려동물 중심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여러 정보와 소식을 접하다 보니 동물원 동물이나 동물학대 등이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점점 관계가 확장되면서 채식하는 분들도 만나게 됐고, 그러면서 생활 전반에서 동물이 희생당하지 않는 삶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게 됐어요. 요즘은 윤리적 소비나 환경 전반의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요.

Q. 이번 시범수업 전에도 동물권 교육을 해보신 적 있나요?

A. 재작년부터 꾸준히 하고 있어요. 주로 유기동물에 대한 내용이었고, 기사를 읽고 설명해주거나 카드뉴스 등을 같이 보면서 입양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 유기견 입양 절차 및 과정을 주제로 한 시간 정도 수업을 하기도 했어요. 진도를 나가야한다는 부담이 있다보니, 주로 창의적 체험 시간에 진행했어요. 당시 자료를 구하는 과정이 좀 어려웠어요. 적합한 자료를 찾고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공신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Q. 수업 준비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A. 카라 윤리적 소비 학습지도안에 제시된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하면 되겠다 생각했고, 주로 블록 수업으로 약 1.5차시 정도 진행했어요. 전반적으로 수업의 전체 흐름을 크게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자료를 추가하거나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구성했어요. 그리고 채식 식단 만들기 활동을 할 때 사고의 폭을 풍성하게 넓히고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다 같이 채식 메뉴를 생각해 칠판에 붙여보는 활동을 추가했어요.

Q. 학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반응은 어땠나요?

A. 학생들이 책 읽어주는 걸 많이 좋아하거든요. 주인공에게 관심도 많이 가졌고 집중도 잘 했어요. 뭔가 쓰고 발표하도록 하는 등,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때 재밌어하고 관심이 많았어요.

Q. 수업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기도 했나요?

A. 지도안에 있던 내용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다보니 농장동물 살처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죽음을 잔인하게 표현하지 않는 부분이 어려웠어요. 한 학생이 “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라고 했잖아요.”라고 말했는데, 죽음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려운지라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먹는 것에 관한 주제를 다루다보니 다른 동물권 주제들에 비해서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도 라면이나 떡볶이 등 주변에서 찾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채식 음식 활동으로 끝나서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초등 1-3학년 반려동물 학습지도안 시범수업



인터뷰 전문

날짜

2021년 4월 22일(목)

방식

오프라인 대면 수업

참여

**초등학교 1학년 1반
안** 선생님과 학생들



“가이드라인이나 같이 고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좀 힘들었어요.”

Q. 언제부터 무엇을 계기로 동물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A. 꽤 오래 전부터 평화교육, 인권교육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러다 관심이 확장돼서 동물권 수업도 가끔 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좀 피상적이었어요. 옳은 것이니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었달까요. 그러던 중 6년 전에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반려견을 만났고 그때부터 제 세계가 되게 달라졌어요. (웃음) 제 삶도, 세상을 보는 관점도 많이 바뀌었고 학생들에게도 좀 더 절박하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Q. 예전에 시도하셨던 동물권 수업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A. 동물권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업을 해보기 시작한 건 재작년이에요. 이 학교에 처음 부임해서 5학년 학생들이랑 환경/생태 프로젝트 수업을 했는데, 먹거리 교육 안에서 공장식 축산을 다뤄봤어요. 고학년 학생들은 조사 수업이 가능해서 그런 걸 많이 했고, 학교 축제에서 체험 부스를 여는 활동도 했어요.

Q. 당시 수업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A. 수업을 하면서도 고민되는 지점이 많았고 모르겠는 것도 많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혼자 했기 때문에 교육을 검증받을 곳이 없다는 거였어요. 특히 공장식 축산을 다룰 때는 학생들에게 현실을 어디까지 직면하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무서운 사실들이 많으니까요. 다행히 주변에 교사는 아니어도 이런 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의 조언을 참고해서 수업했어요. 가이드라인이나 같이 고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좀 힘들었죠.

Q. 다양한 주제 중에서 ‘반려동물’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A. 주제는 동학년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했어요. 1학년 학생들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알고 있는 세계가 훨씬 더 좁더라고요. 가장 친근하고 가까운 동물부터 시작해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너무 좋은 지도안이라 다 하고 싶었는데 (웃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요. 농장동물 주제는 나중에 기후 위기나 먹거리 테마 수업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Q. 선생님께서는 지도안을 많이 재구성하신 편인데요. 그림 그리기 활동도 추가하셨고, 특히 온작품 읽기에서 역할극을 활용하신 점이 인상 깊었어요.

A. 학생들이 그림책 내용을 잘 이해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80분 동안 앉아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는 수업이 안 되거든요. 어쨌든 몸을 좀 움직여야 해서, 저도 처음으로 연극놀이를 시도해봤어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흥분했어요. (웃음) 되게 재밌었나봐요. 정신이 좀 없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몸을 움직이고 스스로 유기견이 되어 봤으니 몸에 무언가 새겨지지 않았을까요.



Q. 동물권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반응은 되게 좋았어요. 어린이들이 벌레는 무서워하고 싫어해도 강아지 고양이랑 다른 동물은 대체로 좋아하고요. 유기견 문제를 처음 접하게 된 학생들이 많았는데, 너무 마음 아픈 얘기에서 그런지 굉장히 인상적이었나봐요. ‘유기’, ‘반려’ 이런 말이 어려우니까 저는 금방 잊어버릴 줄 알았는데, 다음 시간까지도 기억하고 대답해주는 게 저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저학년은 감정적으로 몰입을 잘 하더라고요. 수업 중에 유기동물 영상을 보고는 “버린 사람 찾아가서 혼내줄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장난을 치더라도 한 학생이 엄청 흥분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집을 다 부숩버릴래요!” (웃음) 이런 말을 하는 정도였어요.

Q.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나 장면을 하나만 꼽아주세요!

A. 지난 수업 마무리할 때, 다같이 둥글게 앉아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소감을 나눴거든요. 그때 “제가 유기견을 키울 거예요!” 라고 대답해주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키우면서 사랑해 줄 거예요!” 이런 말도 정말 서슴없이 하구요. 이런 게 되게 감동이었어요. 1학년은 정말 신기하구나. (웃음) 신기하지 않나요? 인간에게 이런 시절이 있다는 것이요.

초등 4-6학년 동물권 학습지도안 수업 사례

1. 반려동물
2. 동물원동물
3. 농장동물
4. 주변야생동물
5. 윤리적 소비

교사 인터뷰

초등 4-6학년 반려동물 학습지도안 시범수업



인터뷰 전문

날짜

2021년 6월 15일(화)

방식

오프라인 대면 수업

참여

**초등학교 4학년 2반
김** 선생님과 학생들



“아이들은 생명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Q. 시범수업 준비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나요?

A. 코로나-19 영향으로 여유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학습지도안을 살펴보면 여러 아이들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학년 9개 학급 선생님들에게 소개하고 설득하면서 4학년 모두 진행하기로 했어요. 한 차시가 끝날 때마다 선생님과 회의했는데, 다들 성취기준 등 지도안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서 수업 준비와 학생들 반응 모두 너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곧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 수업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년, 과목에서도 해보실 수 있도록 추천해 보려고 해요.

Q. 카라가 제공한 학습지도안을 재구성해서 사용하셨나요?

A. 아이들이 영상에 적합한 세대라서 영상 자료를 조금 더 추가했어요. 반려동물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나, 나이 들어서 삶을 마감하는 반려동물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실제 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보면 그 부분을 더 기억하고 수업 내용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차를 두고 등교를 하다 보니, 수업 시간이 부족해서 일부 활동은 숙제로 내주기도 했어요.

Q. 동물권 시범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A. 시간이 지날수록 동물권에 대해 조금 더 깊숙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1차시 수업을 시작할 때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어렵거나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2차시 수업 소감에서 어떤 아

이가 “나는 이제 펫숍에서 안 사고 보호소 가서 살 거야.”라고 했더니, 주변 아이들이 “산다고?”라면서 모여들더라고요. 3차시가지 하고 나니 “반려동물 키우는 데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라는 이야기도 하고, 한 아이는 “나는 동물에게 협박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좋은 가족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어요. 이런 시간을 통해 반려유기동물뿐 아니라 동물학대와 동물권, 전반적인 생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Q. 시범수업 후 학생들의 변화가 느껴지셨나요?

A. 저는 아이들이 생명을 통해 온 세상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첫 수업을 할 때는 “강아지 종류가 궁금해요.” 등 단순한 질문을 했다면, 점점 성숙한 생각을 하면서 “강아지 공장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일기장 한 장 가득 빼곡하게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쓴 학생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유기동물을 입양하게 될지 아닐지는 가족들과 함께 선택하게 되겠지만 생명의 소중함, 타자에 대한 책임감, 약자를 돌보는 삶, 공감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 동물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Q. 시범수업을 통해 선생님의 관심사에도 변화나 확장이 있었나요?

A. 저는 처음에 유기동물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키우던 첫째 강아지를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을 마주하고 책임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슬픈 일이라는 걸 가족과 함께 겪었는데, 아이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번 수업을 하면서 동물의 고통이나 동물의 권리, 법과 제도까지 관심사가 넓어지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사회 과목에서 법에 대해 배우는데, 헌법과 인권 등이 나와 있지만 동물권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 4-6학년 주변야생동물 학습지도안 시범수업

날짜

2021년 5월 20일(목)

방식

오프라인 대면 수업

참여

**초등학교 4학년 1반
이** 선생님과 학생들

◆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친화적 등산 문화를 하나 골라 포스터를 만들어 봅시다.
(포스터에 어떤 이미지나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소에 못 느끼더라도 학생들은
변하고 있었어요.”

Q. 이번 시범수업 전에도 동물권 교육을 해보신 적 있나요?

A. 동물권 교육을 단독으로 한 적은 없어요. 도덕이나 국어 시간에 다른 학습 주제나 제재랑 연관지어서 하거나 동물권에 대한 그림책을 본 적은 있구요. 제가 이런 학습지도안이 너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게, 기존에는 구체적,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 교육 자료가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동물권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가 모호하고 좀 많이 어려웠어요.

Q. 그럼 카라 학습지도안은 도움이 좀 되었나요? 처음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A. 전반적으로 되게 친절한 지도안이어서 수업의 구조를 이해하기에는 수업자 입장에서 너무 좋았어요. 수록된 활동에 대한 안내도 정말 친절했구요. 그리고 아마 인식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순서를 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초등 4-6학년 학습지도안 주제가) 반려동물부터 시작해서 동물원 동물, 농장 동물, 주변 야생 동물, 윤리적 소비로 확장되는 흐름이 좋았어요.

Q. 다른 수업과 비교했을 때, 동물권 수업에서 학생들의 집중도는 어땠나요?

A. 상중하로 나눠 보면 최상이었어요. 너무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놀랄 정도로. 너희가 이렇게나 차별 철폐에 관심이 많았다고? (웃음) 아무래도 ‘동물’ 하면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느낌이 먼저 드는지 아침부터 좋아했어요. 특히 제일 좋아했던 건 만들거나 그림 그리기 활동이에요. 새 먹이통 만들면서 너무 좋아했고, 편지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학생들이 편지 쓰는 기분 내라고 제가 교실 앞에 우체통을 만들어 뒀거든요. 동물에게 편지 쓰고 거기 넣으면서 좋아했어요.

Q. 혹시 학생들의 질문 중에서 인상적이거나 답하기 곤란한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A. 길고양이 TNR이나 반려동물 중성화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학생들은 성교육을 제한적으로 받아서, 번식 과정이나 신체상의 변화 같은 걸 잘 모르거든요. 강아지 공장 영상에서 어미견들 얘기가 나오는데 “선생님, 교미가 뭐예요?”, “새끼를 낳는 게 왜 나빠요?” 하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게 나쁘다기보다 인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착취당하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생물학적 기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깐요. 당시에는 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다시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Q. 동물권 수업 이후로 학생들에게서 변화가 엿보인 순간도 있었나요?

A. 제가 지난주에 좀 감동 받은 일이 있었어요. 점심 시간에 학생들 노는 걸 가끔 나가서 보는데요. 1-2학년 학생들이 거미를 보고 “어?! 거미다! 저거 빨리 물어버리자!” 이러면서 모래를 뿌리려는 거예요. 저희 반 학생들이 그걸 보더니 “야! 안 돼! 개도 우리랑 똑같은 생명이야!” 이러면서 제 말투를 막 어설피게 따라 하더라구요. (웃음) “애도 생명이야. 만약에 네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 제가 그런 얘기를 수업에서 했거든요. 그걸 우연히 봤는데 너무 귀엽고. (웃음) 내가 평소에 못 느끼더라도 학생들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보람 있었죠.

Q. 앞으로 카라 지도안을 활용하실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 팁을 나눠주세요!

A.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는 역시 체험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있긴 하지만... 저는 학생들 데리고 학교 밖에 나갔다 왔거든요. 검사검사 새 먹이통도 설치하고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도 보여줬어요. 마침 근처에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가봤구요. 교실보다는 현장에서 설명하는 게 학생들에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눈빛 자체가 달라요. 가능하다면 체험이나 견학을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동물권행동 카라 소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시작되어 동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입양확산과 유기근절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서부터, 산업계의 반생명적인 동물 착취 및 야생동물 위협에 저항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카라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특히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다른 동물과의 공생을 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동물권 교육 및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물권 교육 문의: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홈페이지 www.karaedu.org

이메일 edu@ekara.org

카라 동물권 학습지도안

발행처 (사)동물권행동 카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서교동 457-5)

전화 02-3482-0999

홈페이지 www.ekara.org

이메일 info@ekara.org

발행일 2023년 1월



카라에듀
뉴스레터
구독하기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122 더불어숨센터 | 02-3482-0999 | info@ekara.org | www.ekara.org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edu@ekara.org | www.karaedu.org

 [kara.animal](https://www.facebook.com/kara.animal)

 [animal_kara](https://www.instagram.com/animal_kara)

 [ekara_org](https://twitter.com/ekara_org)

 [blog animalkara](https://blog.animalkara.org)